

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 전화 : 86-10-6505-2671/3
 이메일 : beijingk@kita.net

1 中, 2021년 국내총생산액 18조 달러, 교역액 6조 달러 돌파

-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국내총생산(GDP)가 전년 대비 8.1% 증가한 114조 3,670억 위안(약 18조 달러)으로 '14차 5개년 계획' 첫해 양호한 시작을 알렸음
- 중국 GDP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%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25%에 달했음. 1인당 GDP는 8만 위안, 연평균 환율 기준 1만 2,551 달러로 세계 1인당 GDP를 초과하고 고소득 국가의 하한선에 근접. 1인당 가처분 소득은 3만 5,128위안(약 5,533달러), 가격요인을 제외한 실질 성장률은 8.1%로 경제 성장률과 일치함
- 대외무역은 교역액이 6조 달러를 돌파하여 역대 중국 신기록을 달성함. 2021년 수출입은 30.0% 증가한 6조 515억 달러, 수출은 29.9% 증가한 3조 3,640억 달러, 수입은 30.1% 증가한 2조 6,875억 달러임. 중국의 교역액은 2013년 4조 달러를 돌파한 후 지난해 5조, 6조 달러를 건너뛰고 전년 대비 무려 1.4조 달러 증가하였음

자료원 : 인민일보 해외판

http://paper.people.com.cn/rmrbhwb/html/2022-01/18/content_25899053.htm

http://paper.people.com.cn/rmrbhwb/html/2022-01/15/content_25898678.htm

2 中 디지털경제 규모 세계 2위... GDP의 약 40% 비중

- 최근 중국 국무원은 '14차 5개년 기간 디지털경제 발전계획'을 발표했으며 향후 공업정보화부, 국가개혁발전위원회 등 부문은 5G, 빅데이터센터 등 신인프라 건설을 가속화하고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 도모하며, 제조업·광산·전력 등 주요 업종의 '5G+산업인터넷' 응용을 보급하고 대중소 기업의 디지털화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며 디지털 기술과 실물경제의 융합을 추진할 예정
- 후난성 소재 삼일중공(三一重工) 스마트 공장은 디지털화 업그레이드 후 생산효율이 50% 제고되어 45분이면 콘크리트 펌프 트럭 한 대를 생산 가능하며, 선전시의 마완강(妈湾港)은 5G로 작업효율이 제고되어 공인들이 스마트제어센터에서 6대의 컨테이너크레인을 동시 움직일 수 있음. 공업 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는 일상생활과도 연관되며 청소용 로봇, 스마트 스피커 등 스마트 제품은 소비자들의 편리를 도모해주고 있음

- '중국 디지털경제 백서(2021)'에 따르면 중국의 디지털경제 규모는 세계 2위로 2020년 GDP의 38.6%를 차지함. 지난해 11월까지 개통된 5G 기지국은 139.6만 개로 글로벌 전체의 70% 이상, 5G 단말기 사용자는 4억 9,700만 명에 달했고 10월 기준 산업인터넷 플랫폼은 100개, 연결된 설비는 7,600만 대로 집계됨. 한편 신소비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스마트 로봇, 스마트 폰, 스마트 워치, 스마트 스피커 등 스마트 제품 판매량이 세계 앞자리임

자료원 : 중국상보망

<https://www.zgswcn.com/article/202201/202201170914241003.html>

3 中 2021년 지역별 1인당 가처분소득 발표... 1위 상하이, 2위 베이징, 3위 저장성

- 중국 통계국은 31개 성·시 2021년 주민 가처분소득을 발표, 상하이와 베이징시가 7만 위안을 돌파하였고 상하이시는 7만 8,027위안(약 1,466만원)으로 8만 위안에 근접하면서 전국 1위를 차지
- 베이징시는 2021년 처음 7만 위안을 돌파하였으며 전년 대비 8.0% 증가한 7만 5,002위안(약 1,408만원)으로 집계됨. 2021년 베이징시는 GDP가 처음으로 4조 위안(약 754억원)을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1인당 가처분소득도 7만 위안 문턱을 넘어섰음
- 저장성은 중국의 질적 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'공동 부유 시범구'로서 5만 7,541위안(약 1,082만원)으로 3위를 기록했고 4만 위안 클럽은 장쑤, 텐진, 광둥, 푸젠 등지로 나타남

자료원 : 중국경제망

http://www.ce.cn/xwzx/gnsz/gdxw/202201/20/t20220120_37272694.shtml

4 中 지역별 2021년 대외무역 실적 양호

- 중국 후베이성, 안후이성, 산둥성 등지에서 2021년 수출입 실적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무역파트너와의 교역액이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남
- 후베이성 수출입은 전년 대비 24.8% 증가한 5,374억 위안(약 101조원)이며, 아세안, 미국, EU는 3대 무역파트너로 교역액이 각각 34.1%, 26.1%, 16.6% 증가하였고 신흥시장인 라틴아메리카가, 아프리카와의 교역액은 각각 64.5%, 38.2% 증가했으며, 수출입 업체는 총 7,278개사로 집계됨
- 안후이성 수출입은 36.1% 증가한 1,071억 달러, 외자 사용액은 3.8% 증가한 190억 달러, 신설 외자기업은 14.2% 증가한 385개사, 신규 유치한 글로벌 500대 기업은 4개사로 나타났음
- 산둥성은 RCEP 14개 성원국과의 교역액이 32.9% 증가한 1조 300억 위안(약 193조원)으로 전체 교역액의 35.2%를 차지했고 한국, 일본, 말레이시아와의 교역액이 각각 29.7%, 16.5%, 88% 증가. RCEP 발효 첫해 일본 수출 상품은 3.8억 위안(약 712억원) 규모의 관세를 감면 받을 예정
- 저장성 Ningbo시의 수출입은 1조 1,900억 위안(약 223조원)으로 처음 1조 위안을 돌파했고 RCEP 성원국과의 교역액은 전년 대비 15.8% 증가한 3,123억 위안(약 59조원)으로 전체의 26.2%를 차지함. 아커얼

(雅戈尔)국제무역운송회사 관계자는 RCEP 협정 발효로 수출 상품 원가가 8~10% 절감될 것으로 예상함

자료원 : 중국신문망

https://www.sohu.com/a/513598141_355406

5 中, 2021년 5G 휴대폰 출하량 전년 대비 63.5% 증가

- 중국정보통신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중국내 휴대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13.9% 증가한 3억 5,100만 대이며, 이 중 5G 휴대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63.7% 증가한 2억 6,600만 대로 전체 휴대폰 출하량의 75.9%에 달했음
- 중국산 브랜드 휴대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12.6% 증가한 3억 400만 대로 전체 휴대폰 출하량의 86.6%를 차지, 출시된 신모델은 전년 대비 6.3% 증가한 438개로 전체 신모델이 90.7%에 달했음
-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15.9% 증가한 3억 4,300만 대로 전체 휴대폰 출하량의 97.7%를 차지했고, 출시된 신모델은 전년 대비 11.0% 증가한 404개로 집계됨

자료원 : 중국경제망

http://www.ce.cn/xwzx/gnsz/gdxw/202201/19/t20220119_37269116.shtml

6 中 소매 면세품 시장, 글로벌 시장의 40%... 발전 가능성 무궁무진

- 코로나19로 중국 소비자의 해외 소비가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정부는 면세품 경영허가 발급을 다소 개방하고 하이난 리다오 면세품 구매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면세품 시장의 발전에 활력을 부여함
- 최근 웨강아오대만구의 첫 번째 면세점을 포함한 복합건물인 광저우 CTS(中旅) 복합건물 프로젝트가 2021년 12월 31일부터 시공을 개시하였으며 2025년 오픈할 예정임. 이 건물은 면적 9만 평방미터, 건축면적 60만 평방미터 투자액은 136억 위안(약 2.6조원)임
- 한편 광저우, 선전, 청두, 우한, 창사, 푸저우, 톈진 등 도시도 시내 면세점 운영 계획을 밝혔음. 다만, 현재까지 중국내 면세점 운영허가를 취득한 기업은 CDFG(中免), 선라이즈(日上), 하이난면세점(海免税), CNSC(中出服), 선전면세점(深免), 주하이면세점(珠免), 중차오(中侨), 왕푸징(王府井), 하이난관광투자(海旅投), 하이난발전홀딩스(海发控) 등 10개사에 불과함
- 세계면세점협회에 따르면 2019년 중국 소비자의 면세품 소비는 글로벌 전체의 40%에 달했고, 이 중 해외에서의 면세품 소비규모가 1,800억 위안(약 33.8조원)으로 글로벌 절반을 차지. 고급 상품 소비 규모도 빠른 성장세로 컨설팅회사 맥킨지는 2025년 중국의 고급 상품 소비규모가 1조 2,000억 위안(약 225조원)으로 성장하여 글로벌 40%에 달할 것으로 전망함

자료원 : 중국상보

<https://www.zgswcn.com/article/202201/202201190914471005.html>